

도서 기금 · 장서 기증

중앙도서관 지정 기탁 이유는 ‘도서관이 곧 스승’이기 때문이죠

기부자 김동훈 | 식품공학부 명예교수

도서관이라는 스승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받으면 맨 끝장 선대출자의 기록부에 김동훈 명예교수님의 함자가 항상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서적의 대부분이 이랬다고 할 수 있으니, 당시 선생님의 도서관 이용 빈도 수는 아마 고려대 내에서도 가장 높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철 명예교수가 김동훈 명예교수를 두고 한 말이다. 김 명예교수도 이런 말이 틀리지 않았던지, 학교 재직 당시 ‘고대 도서관의 덕’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되돌려 주고 싶었던 것일까. 김동훈 명예교수는 지난 2009년 1월 고려대에 발전

기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정년 퇴임을 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 기부에 나선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발전기금을 중앙도서관에 지정 기탁했다는 점이다. 그는 해당 기부금을 도서 기금의 명목으로 식품공학 교육·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Chemical & Biological Science 분야의 학술지와 전문 서적의 확충에 힘써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도서관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대 도서관은 귀중한 장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전공 이외의 서적을 대할 기회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학원 도서관은 건물 외관의

역사나 장서 내용이나 타 대학 도서관에 비해 우수합니다. 재직 당시 신세를 가장 많이 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가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김 명예교수는 식품과학계 저명인사다. 그는 식품과학에서도 ‘식용 유지의 산패’ 분야의 전문학자로,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출발한 ‘래디칼에 의한 유지의 자동산화’ 이론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 국내 ‘유지의 산패’의 분야에서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74년에 저술한 <식품화학>은 지금까지도 증보를 거듭해 오며 식품과학 분야의 교본으로 통하고 있다. 출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김 명예교수의 도서 기금은 도서관과 식품공학부와의 협의를 통해 식품공학·식품과학 관련 국내외 단행본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대 도서관 홈페이지(library.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훈 명예교수

“

대학의 스승은 대학 도서관입니다. 귀중한 장서가 많은 도서관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이제는 후학들을 위해 책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

대학 도서관에서 지식의 스승을 만납니다

회고담 이철 | 식품공학부 명예교수

김동훈 명예교수님께서 고려대 발전기금(도서 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기부해주셨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9년 기부를 통해 김 교수님은 오로지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후학들의 성장만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 10여 년 동안 ‘인간과 식량’이라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의 핵심 교양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대학의 스승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왔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의 스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한 대학 도서관 역시 지식의 스승임을 되새겨봅니다. ‘대학의 스승은 대학 도서관’이라는 말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